

디스플레이

샤프와 CEC-PANDA, 합작사 설립 이슈

2013. 6. 27

디스플레이
Analyst 전병기
02.3779-8425
bk.jeon@etrade.co.kr

샤프와 CEC-PANDA, 2015년부터 합작사를 통해 LCD 패널 생산 예정

전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비롯한 복수의 일본 언론은 샤프가 중국 패널업체인 CEC-PANDA(이하 판다)와 손잡고 2015년부터 중국 난징시(南京市)에서 LCD 패널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샤프는 새 공장에 300억엔(약 3,500조원)을 투입해 지분 10%를 확보하고 IGZO(산화물 TFT) 기술을 판다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신 샤프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패널의 최대 절반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판다로부터 IGZO 기술 사용료를 챙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궁여지책(窮餘之策)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고유의 반상(班常)구조의 신분제도는 어지럽혀졌다.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양란(兩亂)이후 국가가 경제적으로 파탄해지면서 재력이 으뎌서 평가 되었다. 농업기술의 발달과 상품화폐경제의 진전, 수공업 및 광업의 발달로 인해 상인(常人)들의 부가 증대되었고, 상대적으로 양반들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부유한 상인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여 양반 신분을 얻었고,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양반과 상민간의 결혼이 이루어졌다.

일본과 중국기업이 LCD 패널 분야에서 자본 제휴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샤프와 판다는 매출액 기준 각각 글로벌 5위, 11위의 업체이지만 속사정은 너무나도 다르다. 지금껏 중국 패널업체들은 기술력은 약하지만 값싼 제조원가를 무기로 저가형 패널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한국, 대만 업체들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 배경 뒤에는 중국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한 몫을 했다.) 반면 일본 패널업체들은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샤프는 그동안 패널의 개발부터 양산까지 모두 자사에서 처리했으나, 지난 해 10월 도산위 기까지 겪었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처해있다. 샤프는 이번 합작으로 저비용 양산체제를 위해 기술제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업 생존을 위해 첨단 기술의 국외 유출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효율의 결합 - 치열해지는 LCD 패널 경쟁

신문 보도대로 샤프와 판다의 합작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효율 및 자본력이 합쳐져 한국 패널업체들에게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합작사를 통해 질 좋은 패널을 값싸게 생산해 낸다면 이는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성숙할 대로 성숙한 LCD 산업은 점점 더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치킨게임으로 흘러갈 가능성 - 탈출구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LCD에만 머물다가는 2007년부터 4~5년간 지속된 메모리 반도체업체의 치킨게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OLED는 LCD에 비해 국내 업체들과 외국 경쟁업체들과의 경쟁력 차이가 뚜렷하다. OLED 투자에 대한 당위성이 여기에 있으며 기업 또한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내업체들의 OLED 투자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함께 관련 산업(OLED 장비/소재 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병기)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